

하나님 신이 아닌 마귀신을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어

학문과 종교의 정의

영이 뭐지 신이 뭐지도 모르면 그게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마음이 영"이라고 쓰여 있죠? 인간의 마음이 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영이 뭔지 신이 뭔지를 모른다면 종교라고 할 수 없고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믿는 것이 종교인 고로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마귀신을 믿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고로 사람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종교도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냐는 거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쓰여 있죠? 시편 82편 6절에는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쓰여 있는데, 지존자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신명기서 14장 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와 자비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한 1서 3장 2절에 가서 보아도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와 자비나라."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오늘날 이 세상 학문은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신이라고 해야 맞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학문은 학문이야, 학문이 아니야?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하죠? 이제그대로 성경 민수기 27장 16절에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건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마음이 영이요, 마음이 신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다면 마음은 피의 작용이요 피의 작용이 마음인 고로 마음이 영이요, 신이라면 사람의 피가 영이요, 신이요? 사람의 피가 영이요 신이라면 피로써 살이 되고 몸이 되는 고로 사람의 몸 자체가 영이요 신이라는 것입니다.

중성자는 하나님의 빛

원자 하나하나 모여서 물질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원자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중성자가 있다고 그러죠? 또 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전자가 뱅뱅뱅뱅 돌아간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마이너스 전자가 저절로 돌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치가 맞는 말이에요요? 돌아가는 힘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중성자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중성자의 빛이 태양빛보다 수 억만 배 빠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논하고 있죠? 콜롬비아 대학교 이원용(李元鏞)박사가 86년도에 한국의 서울대학교 강연회에서 "중성자의 빛은 100억 광년 되는 납의 두께를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단상에서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중성자는 하나님의 빛인 고로 어떠한 물질이라도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죠?

감마선을 비롯한 빛은 납을 투과해서 지나갈 수 없는 고로 납으로 방공호를 1밀리만 썩어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감마선이 투과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공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감마선이라고 하는 것은 쇠도 뚫고 흙도 뚫고 나무도 뚫고 무슨 물질이든지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강한 투과력을 가지고 있지만 납만은 1밀리도 못 뚫는 것입니다.

이원용 물리학 박사는 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항력이 강한 물질이라는 것은 알지만 아무리 저항력이 강한 물질이라도 중성자의 빛은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고로 아무리 투과력이 강한 중성자의 빛이지만 저항력이 강한 납을 100억 광년밖에는 못 뚫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이원용 박사는 중성자의 빛이 무한대로 저항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



구세주 조희성님

르는 고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중성자의 빛은 납의 두께가 100억 광년 아니라 무한대의 두께가 있다 하더라도 다 투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정마와 태풍을 막는 구세주

첨단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이 사람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고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왜 영생의 신이냐 하면 아무리 사망의 장막이 있어도 다 투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로 저항을 일으킬만한 상대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자를 가리켜서 무적장수라고 격양유록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무적장수라는 것은 대항할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년에 장마지는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쪽에서는 비가 오고 있지만 위로는 비가 못 오고 있죠? 완전히 마귀가 밀리고 있는 거야, 마귀가 안 밀리고 있는 거야? 마귀가 밀려서 저 남쪽 끄트머리에만 비가 오고 있는 거죠? 장마전선이 이제그대로 이 위로 올라

오지 못하고 밀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완성자가 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 나라의 수 천 년 전서부터 6월 15일부터 7월 15일 기간에는 반드시 비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쏟아지는 장마철이 있었는데, 81년도부터는 장마지 일이 없었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장마가 있어요? 계속해서 오는 비를 장마비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분명히 해마다 태풍이 한국을 향해서 오다가 중국 쪽으로 비껴갔죠? 중국 쪽으로 비껴가는 것은 한국에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구세주가 있기 때문에 피하게는 거죠? 이런 걸 눈으로 보고도 진짜인지 모르고 고개를 가우똥가우똥하는 사람은 밥통이요? 우리 한국 땅에 태풍이 한 번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제그대로 해마다 25번씩 불어오는데 한 번도 한국 육지를 향해서 불어오는 태풍이 있었어요? 없었죠? 이렇게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격양유록에는 쓰여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진짤까, 가짜까 하는 멍텅구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까요, 천당에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죠?

감로이슬성신이란?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예배를 볼 때에도, 예배를 안 볼 때에도 이슬이 내리고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사진을 찍으면 감로이슬성신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은 곧 구세주의 분신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감로이슬성신을 내리는 자가 구세주"라고 호세아서 14장 5절에 쓰여 있고 "감로이슬성신이 내리면 이 땅에서 죽음을 내어준다."고 이사야서 28장 19절에 쓰여 있죠? 또한 격양유록에는 구구절절이 감로를 내리면 죽지 않는다고 쓰여 있고 불경에도 "하늘의 조씨가 감로를 내리는데 그 감로가 사람의 털구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성불하게 되고 죽지 않는다."고 쓰여 있죠?

분명이 구세주가 틀림없고, 생미륵불이 틀림없고, 정도령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제그대로 격양유록, 불경,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이 21년째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어정쩡한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 아니야? 지금까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진짤까, 가짜까 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인 고로 아예 나올 필요가 없고, 그런 사람은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격양유록에는 인류의 조상이 자기 자식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와 있다는 것이 쓰여 있는데, 오늘날 이 사람을 볼 때에 자기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은 바보야, 바보 아니야? 바보죠?

첨단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죠? 마이너스 전자가 중성자를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은 생명력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모든 물질은 원소 하나 하나가 모여서 형성되고 있는데, 중성자가 하나님의 신이요, 마이너스 전자가 마귀의 영인고로 물질 자체가 신인 것입니다.

소련의 키릴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 몸에서 빛과 같은 오오라가 나왔다고 세계적으로 발표한 일이 있었죠? 그때에 이 사람은 그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서 방출되는 것이라는 것을 논했죠? 사람 몸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물질이 빛으로 방출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물질이 공기 속에 있다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땅에 떨어져서 풀이 살고 나무가 살고 곡식이 사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말씀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죠?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앞을 보고 있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뒤를 보고 있지만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웃으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똑같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의 물질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기를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는 생각의 물질이 방출되는 고로 앞에 사람이 웃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웃게 되고, 또 초상집에 가서 우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마음의 물질이 몸에서 방출되는 고로 보는 사람의 눈이나 몸에 그 물질이 오면서 울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데 이걸 첨단 과학자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생명의 물질이 방출되는 고로 모든 짐승들이 살고 또 곡식이 살고 나무가 살고 풀이 사는 것입니다. 달나라나 별나라에 생명체가 없는 것은 생명의 원천체가 되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죠? 사람은 생명의 신인 하나님의 후손이요? 그러므로 사람 몸에서 생명의 물질이 많이 방출되는 고로 그 생명의 물질에 의해서 이 지구 땅 위에는 풀도 살고 나무도 살고 곡식도 살고 모든 동물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생각의 물질이 방출되면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9장 사사시대》

5절: 사사기에 삼손의 활약 시기를 숨겼다

단지파에 속한 삼손의 생존연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유인즉 삼손의 생존연대를 기준으로 한민족의 고조선 건립시기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손을 잃은 단지파는 그후 동북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사사기(士師記)에 기록되어 있다.

블레셋과 2백여 년간 전쟁을 치름

성경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과 실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사들을 세우시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사기 3장에서 12장까지는 연대기 순으로 사사 웃나엘을 시작으로 하여 사사 에훤,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도라, 아일 등 7명의 사사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사사 삼손을 연대기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따로 떼어 사사기 13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삼손의 활약상과 단지파의 제사장 요나단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사

기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도 역시 정확한 연대기를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베나민지파가 몰살당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사사기 20장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모시고 섰더라"라는 구절을 보아 초대 사사 웃나엘이 등장하기 전의 시기에 베나민지파의 몰살 사건이 있었음에 분명하다.

[사사시대의 연대표]에 의거하여, 사사 삼손이 활약한 시기를 올바르게 찾아 놓는다면 사사 삼갈이 활약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기원전 1267년에서 1248년까지 삼손의 사사기간 20년을 이렇게 규명할 수 있다. 이는 단민족이 기원전 1406년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입성한 후,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과 2백여 년의 전쟁을 치렀지만 승부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단지파의 장수 삼손을 잃은 직후 아타이산맥에 와서 약 2백년간 우거한 후 만주를 거쳐 암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 기원전 1,000년경에 고조선

건립하였다는 승리제단 이긴자 조희성님의 말씀과 합치한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 성읍의 초대 제사장으로 추대

기원전 1406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땅을 향했지만 중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모세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민 27:23). 그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는 120세로 죽고, 이듬해 기원전 1405년에 여호수아는 언약계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속한 장로들과 더불어 진두에서 서서 나아갔고 그 뒤를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젊은 군인들을 뒤따르게 하고 장로들을 앞세운 전투에는 항상 군대 총사령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수 5:15).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기

강한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다. 여호수아 생존시 겨우 소라와 에스다울 두 지역을 점령한 곳에 광야에서 이끌고 온 약 십만 명의 단지파 백성들이 다들 여기서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헐몬산 남쪽에 있는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여 그곳에 단지파 백성들이 거주하였다. 그리하여 라이스 성읍을 조상 단의 이름으로 개명하여 단 성읍이라고 하였고, 단 성읍은 저 아래 소라에서 블레셋 민족과 싸우는 단지파 군대에 식량 공급과 병력을 지원하는 단지파의 후방 진지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한 시기는 요단 서편 땅을 분할(BC1,400년)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삿 18:30). 기원전 1,399년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 성읍의 초대 제사장으로서 추대되었다. 이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와 함께하겠다는 묵시이며 또한 장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단지파 자손에서 출현한다는 예표이기도 하다.*

임대자 및 사사	기간	관련 성구	통치 및 임대 기간
가나안 정복 및 가나안 분배 기간	16년	수 24:29, 삿 28	BC 1406 - 1390년
메소포타미아 구신 리사르의 임대	8년	삿 3:8	BC 1390 - 1383년
사사 시대의 사사			
사사 웃나엘	40년	삿 3:11	BC 1383 - 1344년
모압 에글론의 임대	18년	삿 3:14	BC 1344 - 1327년
사사 에훤	80년	삿 3:30	BC 1327 - 1248년
사사 삼갈? 삼손 20년 BC 1267-1248년	삿 3:31	(여호 7:2에 포함)	임대가 언급한 300년 (삿 11:26)
가나안 왕 아비멜의 학대	20년	삿 4:3	
사사 드보라	40년	삿 5:31	BC 1229 - 1190년
메디안의 임대	7년	삿 6:1	BC 1190 - 1184년
사사 기드온	40년	삿 6:28	BC 1184 - 1145년
아비멜렉의 임대	3년	삿 9:22	BC 1145 - 1143년
사사 도라	23년	삿 10:2	BC 1143 - 1121년
사사 아일	22년	삿 10:3	(둘라 기간에 포함)
블레셋의 임대 40년 (BC 1121-1082년)	임대 18년	BC 1121 - 1104년	사사 삼손 (BC 1121 - 1102년) 사무엘 선지자 (BC 1102 - 1050년)
	사사 임대 6년	BC 1104 - 1099년	
	사사 임대 7년	BC 1099 - 1092년	
	사사 임대 10년	BC 1092 - 1082년	
	사사 임대 8년	BC 1084 - 1077년	
시울 왕 즉위			BC 1050년
사사시대 약 340년			BC 1390 - 1050년

출처: 【구약사사기 3권】 열매가 깨지지 않는 『언약의 열매』